

* <주일말씀 주제>를 인식시켜 주고, <잠언>을 전해줘야 된다.

모두 금주 말씀에서 나온 잠언들이니,

<주제>를 생각하면서 들어야 ‘그에 해당되게’ 깨닫는다.

* 설교자는 <잠언>을 읽어주기만 하지 말고,

한 절, 한 절 잠언을 풀고 해석해 주면서 설교해 주어야 한다.

• <수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전해 주는 잠언>은

선생님이 화요일 새벽부터 낮까지 깊이 기도하면서

받아 주신 ‘계시의 잠언’입니다.

<절대자 하나님 앞>에 절대로 기도하며 행하니,

하나님은 ‘주일말씀보다도 더 깊은 말씀’을 주셨습니다.

이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잘 들어야,

<절대자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>를 확실히 알고 깨닫게 됩니다.

<2021년 10월 23일 토요일 새벽, 주 말씀>

1. <절대로 행함>이 ‘그 얼마나 강하고 위대한 삶’인지 알아라.

2. <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의 말>에 ‘요동’하지 말아라. <전지전능하신 절대자 삼위일체가 허락한 말>만 ‘중심’하고 행하여라.

3. <전지전능하신 절대자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>가 돕지 않으시면, ‘연약한 인간’은 영도 육도 살 수가 없다. 그러므로 하나

님은 끝까지 도우신다.

4. <인간이 하나님을 대하는 것>을 가지고서는 하나님이 ‘그 생명’을 구원할 수 없다. 하나님은 <생명>을 살리실 때, ‘무조건 살리고 보자는 뜻’을 두고 살리시고, 이처럼 은혜를 주고 그 후에 은혜를 갚도록 ‘사명’을 주어 행하게 하신다.
5. 항상 <하나님이 자기를 끊임없이 돕는다는 것>을 절대 잊지 말고, ‘어떤 어려움’이 있어도, ‘어떤 힘든 일’이 있어도 낙심치 말고,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, 하나님을 ‘절대로’ 대하여라.
6. 섭리세계에 살아도 <온 세상>과 <섭리사>와 <자기>에게 ‘절대로 행하시는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’를 믿지 않는다면, 불안과 걱정과 염려 속에서 살게 된다.
7. <절대자 삼위>를 <절대로> 믿고 행할수록 - 잘 되고 형통되고, 삼위와 일체 되어 희망과 기쁨으로 살게 된다.
8. <사람이 절대로 행하지 못하는 원인>이 있다면, ‘마음’이 약해 서다. 절대로 한다고 약속해 놓고 ‘그 사람의 사정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’이 오면, 마음이 변해서 절대로 못 하게 되기도 한다.
9. 사람은 <약한 존재>로서, ‘굳은 마음’을 먹고 하겠다고 했어도, ‘사랑으로 유혹하는 자’, ‘물질로 유혹하는 자’, 혹은

‘각종 환경의 주관’을 받아 절대로 못 하게 되기도 한다.

10. 하나님은 <어떤 계획과 목적과 뜻>을 세워 놓고, ‘사람’과 의논하지도 않으시고, ‘사람의 말’을 들어보지도 않으시고 일사천리로 절대적으로 행하신다. 그렇기 때문에 ‘절대로 행하시는 하나님’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.

또한, 절대로 행한다고 해서 <하나님이 사랑하는 자>나 <하나님께 간구하는 자>나 <하나님이 주관하는 자>에게 ‘해’를 주면서 행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.

11. 하나님은 <그 사람이 행한 것>을 ‘의’를 보시고. 그로 인해 ‘그 생명’을 사랑하고 기뻐하시며 절대로 행해 주신다. 이를 깨닫고 감사하고 감격하며 절대자를 절대 믿고,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낙심치 말고 기도로 간구하며 행하여라.

12. (하나님) 너희가 <내가 맡긴 일>을 절대로 하면, 나 여호와도 너에게 절대로 행해 주리라.

13. (하나님) 너희가 <내가 말한 것>을 절대로 행하면, 나 여호와도 <내가 말하는 대로> 절대로 실행하리라.

14. (하나님) 모든 자들에게 약속하나니, 나 여호와가 너에게 더욱 ‘절대로’ 행해 주리라.

15. 자꾸 말을 하니, 새도 지저귀었다. 우리가 하나님께 자꾸 기도
하고 간구하면, 하나님이 그냥 있으시겠느냐. 대답하시고, 합당
하게 깨닫게 해 주신다.